

다소 독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소련인민의 위대한 조국 전쟁이 시작되었다. 소련의 방방곡곡에는 "모도다 전선으로 모든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란 표어들이 붙어 있었다.

조국의 수호자들은 전선으로 나갔고, 지원자들도 빨치산 부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구국 전선에 떨쳐나섰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청년들만이 이 성전에 참가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다. 쓰딸린주의자들에 의해 전체 조선사람들은 천일민족이라 하여 불신임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소련에 살고있는 전체 조선청년들은 어떠한 불신을 써라도 풀수있는대로 전선에 나가서 무척스럽고 죽음을 헛어 버릴 결심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이런 극심한 시기에 다뉴겐느 시내 각 대학들에서 한인 대학생들을 모스크바 나리마노브 명령정찰기관학교에 선출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출은 7월 26일 본부 제 5호실에서 하는데, 공화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벌써 작성되어 있는 명단에 따라 호출하여 달화한다음 보내준 한다고 하였다. 이런 뜬소문을 들은 김창국은 당시 농업성 공개시설 대학 3학년에서 재학중이었다. 그러나 창국씨는 모스크바 정찰기관학교에 한인학생들로 선출한다하기에, 이것은 꼭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준비를 예견하고 조직하는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농대는 조선이 해방된다음에 나와도 되니까 우선 조국불의 해방해야 된다는 조국애에 흥만 된 다음으로 7월 26일 본부 제 5실에 자청 찾아가서 자기를 꼭 정찰기관학교에 보내달라고 밝혔다. 7월 26일 특별 취급부 소장동지는 자기 혼자서 해결할수 없으니 2일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다. 이때에 바로 다른 대학들인 국립종합대학에서 선봉반, 정학을 리종인, 인민경제 대학에서 김예원 등 총합 7명 먼저 선출되어 떠났고, 이것은 제 2차 선출이었던바, 그 후 후차

이런 선출은 계속되어 전 우크라이나공화국적으로 많은 동지들이
선출되어 모스크바로 가게되었다. 그중에서 몇몇만 예를 들어
본다면 한일부, 박완옥, 김동수, 정태선, 박길남 등 동지들이었으
며, 특히 지적해야 할것은, 대학들중에서 많이 선출되어
갔었는데 그들중 많은 동지들이 선내에 들어가게 되었던
바, 선내에 들어선 동지들은 지이나 다 발을 붙이지 못하고 체
포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김예필, 신봉남과 합 7명어렸는데
1943년에 북한 지역에 들어와 1944년 6월에 맞이 막으려
신봉남이 체포되다보니 전부다 붙잡혀 1945년 7월에 6명은
사형 당하고, 김예필 하나만 평양감옥에 남겨 두었으나, 1946
년에 그들의 공판문건을 평양 형무소에서 발견하자 김예필
은 모스크바로 들어와 소련 형법에 의하여 20년 형기를 받고
씨비리아 어느곳에서 옥사하고 말았다. 이렇게 조국의 해방
을 위하여 헌신대항행들중 많은 동지들이 조국애와 명예감으로
죽고 죽어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김창국씨는 3월중에 또 다시 깨닫게 해 5호실에 갇혀가자
그에게서 자천서를 접수한다음 그를 김예필 형에게 프린업시켜
모스크바로 보내었다. 그들은 모스크바 어느구변 근관학교에서 2년
간 공부하였으나 자기 일행 7명 이외에 다른 동지들은 한명도 만나보
지 못하였다. 경찰 학교란 이름이 없는 비밀리에서 학습식한다는것을
창국씨는 그때에야 깨달게되었다. 더구나 바비보낸것은, 일어난
에서 큰 곤란을 겪었다. 자지 조선어도 깨끗이 모르는 형편에서 일행
공배위야 되며 일본국가는 꼭 배워야하였다. 또 2년 동안 여한 긴세
월을 모스크바 삼립숙내 파육처 비밀리에서 공부를 하라하니 참 적적
하기란 기막혀였다. 그러나 디니 마음먹고 결정한 일이라, 조국라
면재 식혀 생각할때 백번죽더라도 해야 될일이였다.

김창국씨는 1916년 9월에 원동 변강 연해주 우청구역

시영등 빈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향촌에서 소학교와
 초급을 나오고, 노왕영시에서 1년간 사범전문학교에서 후로하라
 원 등에서 전회한인들의 강레이주로 인하여 1937년에 대한
 켄트주 상설직 구역 쓰베르들을 끌노르에 오게되었다.
 강레이주로 인하여 아직부모들의 생활이 단축되지않은 조건
 에서 공부하여 떠나갈수 없었다. 그리하여 부모들과 같이 2년간 끌
 노르에서 일하다가 1939년 봄에 다뉴켄트 농촌관개시설대학
 기계학부에서 공부하였다.

김창국씨는 본래 어려서부터 운동을 즐기면서 주로 축구를
 잘하여 자구역비와 또내에서 전행하는 시험에는 비라집
 어이 참가하였다. 그는 몸이 아주 튼튼한, 건강한 신체로
 가진 스포츠맨이었다. 때문에 그가 축구팀, 정단원이 된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청년시대에도 어떤 사회활동에 적극
 하면 이-삼명만한 적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때문에
 그는 하교난 축구팀이라 불리울수 있었다. 그런 건강 체에 정할학
 교에서 공부하면서 유모까지 배워다보니 본래 실력을 더 배가하여
 주었다. 그는 적과 싸워 이기자면 육체적 건강과 함께 전략
 기술을 잘 아는 동시에 상대방의 적을 잘 알아야 한다. 군사 전
 략상 본질을 깊이 인식하고, 전실환 의리에서 자기를 타견
 한 상부의 귀와 눈이되려고 성실히 배웠다. 특히 조상들의 신
 청한 양을 짓밟고 있는 일본제국주의를 대상으로 하고 싸울
 생각을 할때마다 그는 마음속 한결 긍지롭기도 하였다.

군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후 1943년 7월에 소
 련 원동행장 제2원선 검찰국 특수검찰여단에 배치되어
 전후임부수행에 착수하게되었다. 그 여단에 편입된후 그는 반주
 에서 넘어온 김일성 대위가 자기의 대대장이니, 최용건 상위가
 정치 부대대장이니, 제1대대와 제2-강전 대위가 지도하는 대
 대성원들은 전부다 북한, 만주 혹은 소련 공역에서 각공화국에서

선출되어 모스크바에서 경찰 군관 학교를 마치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창국씨가 파견받은 88경찰여단은
 타바롭스크 시에서 약 60 킬로 동남간으로, 아무르강변 좌안을
 따라 내려가다가 지방 나나이족들이 살고있는 민족 자치 현
 바트스꼬에란 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블라지보스토크와
 연결된 자동차 대충로에서 아무르강변쪽으로 약 30 킬로
 쯤 들어가면 우림이 무성한 아무르강의 적의안할 만을 끼고
 앉아 경치는 아주 훌륭하였다.

당시 88 여단의 군부대 번호는 44810 이며 그 부대의
 편제를 보면 대략 아래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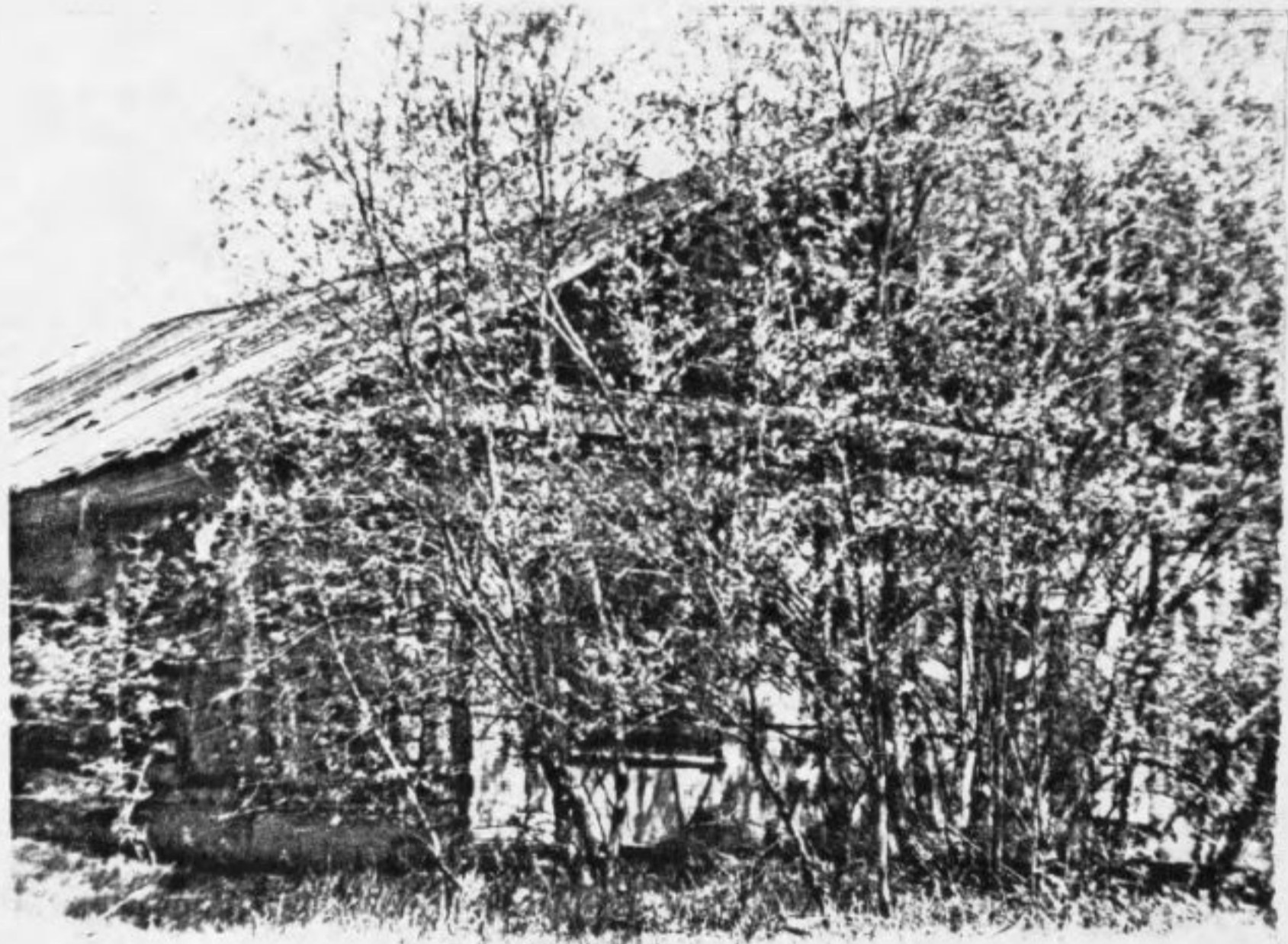
- 제 1 대대, 대대장에 대위 김일성, 주로 한인들로 구성,
- 제 2 대대 - 주로 중국인들로 구성됨
- 제 3 대대 - 대대장 강건 대위,
- 제 4 부전-라지오 통신대대,
- 제 5 권위소, 소장 예 리동건 소좌, 소련 디루꾸르크 출신,
- 제 6 방격포 중대, 러시아인 상위 헤브르크노이,
- 제 7 경리소대

88 여단에서 복무하던 군부사공 4명이 타슈켄트 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 김창국 선생과 유성철 선생은 이미 벌써
 별세하였으나 경리소대 부소대장으로 있던 싸돌끼 알렉세
 워드로비치 (이분은 한인이나 할아버지가 러시아어를 가졌기에
 그도 러시아 성을 가지고 있음)와, 방격포 중대 부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중위 켈레 이사이 와실레위치 (나나이족)가
 살고 있는데 그는 약 10년전에 노좌침술에 현역에서 제
 대 되어, 현재 연금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는 현재 북민 시
 나이다 베베르롭나와 같이 있는데 자식을 - 오누이는 열지 않게
 역시 타슈켄트 시내에서 잘 살고 있다.

88 여단 여단장에는 중공부대에서 큰 공훈을 세운 항일
 후사 대좌 후보중이였으며, 함포장에는 시린쓰끼 공좌
 가 계셨고, 여단 정치부장에게 세로진노좌, 정치부부장에
 중공인 장수참, 정치부 지도원으로 김책 선생이 계셨고,
 최용권 상위는 제 1대대 정치부대대장이였으며
 정치 부외부장에 아르부노브 공좌가 계셨다. 그 당시 이
 여단은 제 2 전선 정찰극장 소르끼노장, 북극관세
 안꾸지노브 대좌에게 보내주어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정찰부대에 배치되어서야 알게된것은 정찰이 여러 계통이 되는것이냐
 타슈켄트에서 떠날 때에는 같은 군사병원에서 떠났으나, 그 후다
 시 만나보지 못한 동무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는 함
 격되지 못하여 집에 돌아간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런것이
 아니라 정찰계통이 다르고 학교가 다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언
 것이다. 아래에서 알고 보니, 당계통 정찰일꾼, 게게비계 계통, 준
 군인계통에서 육군정찰, 해군정찰, 등이 있는것이다.

88 정찰여단에는 근본적으로 만주에서 항일비활지산투쟁
 을 하다가 일제의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소련국경을 허가 없이 무
 조직적으로 넘어온 김일성 이하 한인 부대들과, 공백적 허가하에
 국경을 넘어다니며 공작하던 중공 별파지산부대들과, 소련 지역에
 살던 한인들의 정찰학교를 필한후 배치된 인원이 약 300명가
 량 있었으며, 지방동양쪽으로 조직된 박적포충대로 있었다.
 김일성부대는 부대는 처음 국경을 횡령하다가 국경수비대에 의해
 몽땅 체포되어 블라지보스토크에 수용소에 강금되어 있었다
 가 중공당 이하 후보중 여단장이 보증을 서고 석방시켰으
 며, 자기 부대에 편입시켰다. 1940년도에 타직 후보중부대
 에 편입되기전에 김일성부대는 블라지보스토크 주변 오게안스크
 에서 채소농사를 짓었다고 후보중부대 사람들은 말하였다.

대대장 김이성이란 간혹 김 경숙이에게 장가들어 부대
 주변 기관 사택에서 살아는데, 그때에 벌써 1942 년도에 한
 생할 유라가 자라고 있었다. 아이는 자라고 있어도 경숙이 는
 군의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많은 군무원들에게 항상 따듯한
 간호를 하여 주었다. 1944년 말엽에 또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데 그 아이는 우타라고 불렀는데, 경숙이 는 부대내에서 돈 쌀
 라고 불렀다.



58 여단 기관 사택. 지금 한방에서 김유리가 1942년
 에 탄생하였다. 현재 이 사택은 비어있으나 혁명 역사
 유적으로서 보존하고 있다. (1991년 촬영)

여단은 계속적으로 전투임무 수행 목적으로 만주와 북한에, 대대
 는 한명, 두명씩 파견하였으므로, 아주 드물게 세명씩 보내는 따
 도 있었다. 이런 형태에서도 군사 정치 활동은 계속 진행하였던
 바 상황시각에는 흥동이가 중요했다. 같이 연구 시간도 없었다.

부대내에 있는 경리소에는 부임경리를 지도 하였던바 주로
 도야지치기로 하고, 감자와 양배추, 파 등을 많이 심어 부대

이상 상부기관에도 설치하여 주었다.



88 특별 경찰 여단 본부, 본 건물은 현재에도 그리 황폐
하지 않았으나, 역시 혁명 유적 건물로서 가시외물로 둘러 막고
보전하고 있다. (사진 1991년 촬영)

여단 부업종에서 물고기 잡이와 산짐승 산양도 건행하여
부대내 막식을 많이 섭취하여 주었다. 이 부업은 주로 지방
나나이 민족으로 구성된 발격포 중대가 보강하였다. 그
중대 부중대장으로 계시던 김태 이사이 와실레비치는 현재
타슈켄트 시에 살고있으며, 12년 한변식-꼭 가을 연어가
모를 철이면 자기 향촌에 휴양을 가서, 그립던 친척도 만날
겸, 지방민족이 별리로 즐기는 연어고기도 먹기도 하고 또 소
금 절구를 하여 열개씩 가지고 오기도 한다.

김창국 선생은 경찰 여단에 도착한후 약 한달 동안에 여단 정
형과 같이 북북하는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잘 알게 되었다. 창국
선생은 제 1 대대 제 1 소대 성원으로 명령받았다. 소대장
에는 까사흐 공화국 코슬로르다시에서 온 군관 중위 박길남

동지가 지도하였다. 황국 선생은 시간이 없으면 전후 업무 수행
 차로 파견지에 갔다가 돌아온 대원들에게서, 도는 어리 노래 전
 불이 북한어나. 1만주에서 살다가 윗정원 김일성 북대성원들에게
 서 국경 건너편의 이야기도, 비밀재료 수집경험과 더불어 많이
 들군하였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루-하루를 보낸중 하루화심
 식사 후에 여단 본부에서 호출장을 받았다. 김선생은 전후업무반
 으라 노라는 호출장이라는것을 알아채고 좀 조심스럽게 근복차린
 도하고, 구두도 잘 닦아신고 여단 본부로 행하였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몸도 좀 떨리는것 같고, 발걸음도 좀 서투른것 같은
 감히 감속되었다. 그대에 김선생은 한걸음 멈추고 정신을 정
 돈하고, 다시 계속하여 걸으면서 조국을 위한 영예로운 전후업무
 접수차로 가는 걸음이 용감성과 대담성이 깃들린 남자다운 걸음
 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보를 전하 여단 본부에 도착
 하여 당직 기관에게서 안내를 받은 다음 여단 정찰라장실에
 들어가 정찰업무를 받게 되었다. 과장실에는 정회부장, 참모장,
 정회 안전부장등 지도자들이 같이 있었다. 정찰라장은 벽에 걸
 린 동안과 북한 지도를 가르치면서 매 도시, 매 군사 주둔
 지점 등을 가르치면서 정찰 행동을 위한 흥행권까지 기입
 한 적은 지도를 주면서 그 지도에 기입된 기호들과, 흥행권 및
 도시 명칭들을 구인 하루 동안에 어사실에 앉아 원독내속
 적역에는 기차로 떠나야 된다고 하였다. 떠날시에는 그 지
 도를 본부에 받치고 가야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1943년 10월 25
 일에 저녁 5시가 되자 김창국 선생은 첫 전후 업무 수행차로
 바쁘쓰고에 서^여날씨 초대장 박길남과 향촌 친구 유성철 등
 무드라 작별하면서, 성철동무에게 부탁하는 말로- 성철동무
 만약 내가 전사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동무가 알고 있는 주소
 대로 어머니에게다 편지나 한장 꼭 써 불히라고 하였다.

끊임없이 원시적인 길은 마련하여주는 전속업무를 맡고 떠나는
 길에 동행생이었던 유성철 동지와 백니꼴라이 소대장을 만나
 작별이 연사를 하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인상을 가슴속 깊이
 품고 자 동차에서(물류) 자기 전속업무를 다시 한번 원독으로 끝-
 끄며 생각하였다. 그것은 동북의 각 도시들에, 또 비행장들에
 주둔한 광동군부대들의 이동상황에 대하여서, 병종별을
 재포들을 수집하여 본부에 통지하려 한 것이었다. 그런데 목적지
 에 도착하면 항일투사들의 어떠한 단체나, 특히는 항일 빨
 리산 부대들도 만날 수 있으나 그들이 전속업무 수행에 많은 방조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곤 하였다. 떠나 가는 길에 계속 생각하게 된 것은
 성철 동무도 약 1개월 전에 동만에 가서 전속업무를 성과
 적으로 수행하고 왔는데 하는 것이 항국 선생은 어떠한 위훈
 에 고무하듯도 하였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성철 동무의 한
 가지 말씀 « 쉬운 전속이 어디 있겠소? 그저, 영리하게
 인철하게 동작하면 별일이 없을 것이요 » 하고 태연하
 게 일러주던 말씀이다. 이것은 그 다음에 엮은 일이었다.
 12항국 선생은 한번 유성철 동무를 만나 자기 정찰업무
 행시에 겪은 한 예비소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때는 바로 10월 말이었다. 여름의 따듯한 공기는 다 어디
 로 가고 가을의 찬바람은 벌써 저녁이면 눈을 흐려버리게
 감촉해 하였다. 화룡시에서 잠 두시간 동안 사위를 바라보
 았으나 만나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저녁에야 한
 사람이 나타나 필요한 재료를 받아 뒷산에 올라가 하전
 하고 저녁, 어두워서야 어저께 밤을 새던 집을 찾아
 가게 되었다. 저녁 식사후 주인은 마음 놓고 쉬라고 하
 나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이때에 밖에서 인
 기척이 났다. « 이것이 나의 끔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번개치듯 하였다. 그래서 창국선생은 권총을 장한 하
 여 들은 창물 구멍으로 내다보니 어떤 키가 구척이나 되여보이
 는 한사람 외에 또 한사람과 함께 마태방에 들어서면서
 « 집에 또 누가 있는가? » 하는 질문^{주인은}에^번 끝에서 온, 신
 임할만한 손님 한분이 있다 기고 하였다. 그러자 창국 선생은
 쫓아내려고 권총을 다시 꺼내 밑에 집어 넣고 손님들의 눈치를
 살피 보았다.

« 추운에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북에 대하여 나는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김일성 동북과 함께 조선화
 방을 위하여 항일투쟁에 참가하는 사람이요. 그대, 지난여
 름 동안에 김일성 동지와 기타 동북들이 물건강히 잘있었어 부
 대 권투 경회 훈련도 잘진 행하고 있는지요. 여단장 주보금 씨의
 건강은 어떠한지 돌아가시면 안부나 잘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제 물어 나의 말을 자세히 듣고 돌아가 본부에 전하십시오. 기본
 내용은 무전으로 전달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무전으로도
 전하지 못하오. 때문에 동북을 파견한게오. 왜냐하면 무전
 내용은 적들이 즉시로 해명하기 때문이오» 하고 나서 그이는
 창국이 아직 가보지도 못한 홍화, 심양, 공주령, 질린, 할빈 등 비행
 장들에 대한 자세한 재료를라, 지상병들에 대한 자세
 한 재료들을 병종별로 집결소, 주둔지역, 이동 정형등을 명
 백하게 알려주었다. 다음으로 조양천, 옥단강, 연길, 밀산 훈춘
 등지의 군인들의 집결과 이동에 대하여서는 최근 재료 들어 없
 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돌리면서 재료를 수집하되 단단히
 주의할것은 최근 일제는 전체 병력을 소련 국경에 집결시
 기는 관계로 이공들에서의 적들이 감시가 아주 심할 것이오»
 하였다. 이 말이 끝나자 그이는 이어 잠들었다. 그러나 김창국 선
 생은 눈을 뜨고 밤을 새우면서, 이사람이 도대체 누구기
 때문에 여단일도 잘 알고 또 나를 기다렸다고 하니, 왜 출발

시 여단 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주의를 ~~내~~ "다만 한가
 지 ^말 할 것은 항상 ^말 할지라도 성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였다. 그런데 성원은 누구인지 알 수 두자만 딱 말하잖을
 했어였다. 그런데 그가 주는 지시와 여단 본부에서 주던 지시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마도 사람은 우리 사람이 될
 다른 것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한의 원칙에 의하여 "짐
 작하나 추측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때든지 복을 주지 말고,
 작기가 아는 것은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고, 될 수 없는데로 남의
 말을 ~~듣~~ 어 듣고 그것을 다시 채로 걸어서 사용하라는" 정
 칙에 의하여 행동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지고 내 일에 신경
 통에 대하여서 끄끄는 동안 어느덧 날은 밝아서 그이들과 작
 별하게 되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여기가 바로 화공촌 소재 지
 언데 여기로 불어 약 2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간도시가 있
 다는데 거기에 가볼 생각은 볼 수 없으나 행동계획에 들지 않
 아 자의로 해결할 수 없었다. 간도시 이것은 원동에서 살고있는
 청년들의 희망이었고 행복을 공상해본던 지나간 날의 가슴속에
 길이 깔았을 따름이었다. 간도시-이것은 그 당시 한인들의 문화
 중심, 조선 독립운동의 중심지, 연세리들이 많이 양성되던
 "동흥" 공학교, 각종 체육, 특색은 동흥학교 축구 팀은 전설적
 으로 소문을 노치 안았는가? 그 도시의 걸까지 왔다가
 가 보지 못하니, 애처롭기는 하나, 전후 업무를 수행하는 몸이라,
 국가의 몸이라, 국가 임무를 꼭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긴
 창국 현생은 발길을 중앙원 방향을 돌렸다. 평함군에게
 있어서 근심스럽을 하루 밤이 십년 맞잡어라고 몇 십년이나 지나
 가던지 1943년 12월 초에 훈춘시까지 훌훌하여진 몸으
 로 겨우 도착하자 거기서 불어 양내원의 방주에 의하여 소련국
 경을 넘어 평해시에 근 70킬 크라스끼노 시에 들어가 큰 숨을 활쉬우

있었다. 김창국 선생은 본부에게까지 무사히 도착하자, 여단장
사무실에서 전후임무 수행에 대한 보고를 청천희 한다음, 여단부
들의 질문중 김일성동지의(지분) 동무를 화공사에서 만나준
사람이 누구인줄 아는가? 하는 질문에 자기 자신이 대답
하련다. 그양반이 우리 여단 정치부 지도원 대위 김백씨
였습니다. 그것 참 잘 만났대요» 하였다. 여단장은 나의
한생 이후 첫 전후임무수행 보고를 들으신 다음 나를 끌어
안으며 참 수고로움이 하엿소 하고, 참모장계 명령하리 를
김창국 동무를 적성출장에 내신하시오 하였다. 그때 김창국
동무는 차렷 자세를 하고 « 조국에 복무합니 하고 여단장
께 감사하엿다.

창국 선생은 약 반년간 부대내에서 군정출원에 참가하면서
전후리업수행시 잃어버린 에네르지를 보충하였다. 그러던 차
1944년 7월 초순에 태평양 함대의 도움으로 복원 나진항부
근에 도착하여 물역까지 하고 나온 고무보트는 공기를 비벼고
물 밑 돌바위 틈에 감추어 놓은 다음 이미 경해전 폭풍-큰 돌
바위 곁 소나무 2대가 서 있는 곳으로 접근하는 순간 어디에서인가
가는 회파란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소리는 창국선생이 기다리
지 않는 소리기 때문에 큰 바위 뒤에 몸을 감추고 숨어 었노라니
회파란 소리는 다시 반복되었다. 창국선생은 생각하기를 언젠가
자기가 발전될 것만은 사실이고 하여서 하여튼 자기를 부르는 신
호이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고 속히 큰 바위 위 소나무 부근에 접근
하자 어떤 중청년이 나타나기에 « 묘사이 기록은 어찌한지요? »
하고 물었더니 « 기록은 아주 나쁘지만 여부들은 바다가로
나갔습니다 » 하고 대답하기에, 암호가 맞으니 제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자, 그 청년은 말하기를 내가 바로 1명월립이다
하였다. 그가 바로 만나야 할 사람이었다. 창국선생은 그 청년

의 뒤를 따라 나진시로 들어가는 어구 샅기늬에 자리잡은 초막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다음 안네자는 주인을 소개한다음
 밤을 편히 쓰시라고 하고 가버렸다. 김선생은 그라도 저녁
 식사나 같이 하면서 행동상 도음이 될 이야기나 좀 들을가 한것이
 그 청년이 출가버리니 대단히 섭섭하게 되어 어떤 큰 여선을
 내놓은것 같기도 하였다. 여기는 동안보다 썩 깨끗하고 좀 크되서나
 처음보는 도시, 처음보는 사람으로, 처음들은 말씨, 사람마다 참
 국 선생을 이상하게, 의심스레 보는것 같기도 하였다. 참국 선
 생은 자리에 눕기는 하였으나 손톱 여물을 켜듯이 짙한 잠이 들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근심만 하였다. 어느덧 동이 터서 아침서
 면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공학생복을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참국 선생의 일거 일동을 살펴보면서 말을 걸러보려고 시도하
 였다. 참국 선생은 얼른 식사를 끝 짓고 집을 떠나면서 «저
 녀 10시 경에 돌아오겠다»고 주인하고 약속하고 나진 시로 내
 려 갔다. 처음 도착한 도시라 정히여진 기점을 찾으려 하여도
 어방이나, 방향과 거리를 알아야 할터런데 원한가지도 모르니
 모든것을 일일이 물어서 찾자니 참 어렵기만 하고, 걸음은
 걸어도 눈살핌까지 하라보니 등골세 땀만 흐르는것이였다. 귀
 심때나 잘되어 한끝에 도착하자 «제사람»을 만나서 식당
 에 들어가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가 많은 다음 그사람
 의 방조에 의하여 오후에는 뒷산에 올라가 재금들로 발동하고
 지난 밤을 새운 주인집 근방에 오기는 하였으나 집에 들지 않고
 약 200 리하 떨어진 뒷산 강냉이 밭에 들어가 주인집을 두방
 하였다. 저녁 시간이 10시가 되자 주인집 마당에 아침에 이
 상하게 참국 선생의 거품을 살피던 공학생과 일보 경관 등
 12명이 마당에 들어서는데 보이였다. 참국 선생은 정신을 차리

원칙하게 행동하여 몸을 피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원 뒷산정을 향하여 가서 밤늦, 돌각 단판, 들을 들, 헤지 않고
 뛰었다. 어둠은 밤이라 몇번이나 너러지면서 높다고 소리만 낮
 고 낮다고 소리만 높음 그 길로 달은과정에 뒤에서 연방 들리는
 총소리를 들리면서 계속 산길에 들어가게 되니 추격하는 소리가 없어
 진것을 확증하고 산속 관목 아래 완전히 숨어서 약한시간 숨은
 돌러가지고 공중에있는 별들을 보면서 서쪽-회령 방향으로 걸었다
 김창국 선생은 나진과 회령 사이에는 도시들은 없고 화전인 부락들
 은 없을것이니 거기에서 묵음을 좀 얻어먹을수 있다는것을
 믿었으니, 걸어가는 동중에 반듯이 무룡천강 상류 세개를 건
 너야 갈수 없다는것을 생각하면서 북한외 자연지도를 회생
 하였다. 김창국 선생은 2 일간에 약 150킬로미터 거리를
 돌파하고 회령북쪽에 있는 한광촌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자기 사람>을 만나 같이 산정에 올라가 비행장도 내려다
 보고, 비행장에는 교도 연대만 남고 전투부대는 동양으로 이동
 하였다는것을 확인하고 여러가지세로들을 종결시켜 북쪽에 하
 전하였다. 이것은 창국선생의 정찰활동의 극히 적은 예비비수였다.

1945년에 조국이 해방되자 김창국 선생은 바르스크 여단
 부부를 출발하여 대대장 김일성 대위 언솔하에 1945년
 9월 19일에, 소련군 운동군함 "백가호브"를 타고 원산항
 에 도착하였다. 북한에 도착한 어육 계북 인민군대 조직
 에 소련군 고문들터 흥혁원으로 중보한 활동을 하였으니, 1946
 년에 소련이 북한에서 다간이북분이 조선인민군 정찰국 부국관
 직에서 복귀하였다. 당시 인민군 정찰국장에는 최원소장이
 었던바 그도 역시 소련출신으로서 모스크바 정찰학교를 1942
 년에 졸업후 바르스크에 88 정찰여단에서 김일성 대대장
 과같이 복귀하였다. 그는 사상검토시 천안후목원후 행방불명이다.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으로 인한 조선동족상잔이
 개치되자 항국선생은 긴밀히 경찰활동을 진행하면서 아군
 부대들의 전후활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경찰국장과 작전국장은
 임무되는 경찰재원에 따라 작성한 지도를 상부에 제출하였지
 만 경찰국 부국장 김창국 대좌는 제일전선 부대들과 같이 동에
 서, 서에서 기동하면서 전후를 보장하였다. 1950년 12월에 김
 창국 대좌는 전선에서 지뢰폭파로 인하여 중상을 당한 다음 중
 국에 투병되어 약 2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조선에 귀환하였다가
 다시 소련에 투병되어 약 3개월간 치료받고 완치는 안되었으나
 혈은 말로 할수없어 최원진속 귀국하여 원강 항공부대의 대
 표로 몽고, 소련, 중국 등 나라들을 상대로 사업하다가 1958
 년 말에 소련으로 귀국하였다. 귀국후 과거 경찰여단에서 조선
 해방을 위하여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복귀하면 물건들에 근거하여
 년급생활 물건을 우선순속 국가로 돌려 무리로 사색을 보장받고 아들
 삼형제를 공학, 대학등에 입학시키고, 원로로 추직시킨후 평안히
 지내다가 조선전쟁에서 입은부상으로 인하여 1981년 11월 10일
 에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창국 대좌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
 에게 국기훈장 1급, 국기훈장 2급, 자유독립훈장 2급 등 기하
 례 달을 많이 받았으며, 그는 소련 정부로부터도 적성훈장을 비롯
 하여 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 받았다.

현재 김창국 선생의 아들 중형제는 모두 대학등은 나
 오고 직장등에서 책임직 일을 하고 있다. 김창국 선생의 부인
 김혜숙 양은 현재 화갑이 훌쩍 지나으나 아주 건강함 뿐으
 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1995년 10월 5일 김 니콜라이.

총화 양현 간도 북양
소화 동민 인성 북양
연립 동북

권철국^부 김창국 대외 (논흙여물트 커다)

리필기치

시 대 와

파쇼독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소련인민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조국의 수호자들은 전선으로 나갔고 지원자들도 구국성전에 떨쳐나섰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사람들은 이 성전에 참가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쓰말린주의자들에 의하여 전체 조선사람들은 불신임자들로 인정되었었다.

소련조선청년들은 전선에 나가서 이와 같은 루명을 벗어버릴 결심으로 충만되어있었다.

이런 준엄한 시기에 김창국동무는 경찰병들을 준비하는 모군사관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하였다. 조국을 위한 정선에서 어디가 쉬우라! 싸우다 죽는것은 어디에서나 매일반이 아닌가? 청년으로서 후방에 남아있으면서 살기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자기 결심은 정당하다고 확신하였다.

평화로운 생활속에서 자랐으며 공부하였으며 청춘의 진미를 느끼던 그에게 있어서 꿈에도 생각지 않던 특별부대, 경찰부대는 실로 무시무시하기도 하였지만 결심만은 변할 생각은 없었다.

군사학교에서 그는 공부하면서 우리 원수는 일본관동군이며 자기 전투장은 함경북도 일대와 만주전역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때 그는 1916년생인 청년이었다. 적과 싸워 이기자면 <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군사전략상 본질을 깊이 인식한 그는 진실한 의미에서 소련군의 귀와 눈으로 되려고 성실히 배웠다. 특히 조상들의 신성한 땅을 짓밟고있는 일본제국주의를 대상으로 싸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는 마음속 한결 긍지롭기도 하였다.

군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후 1943년 10월에 소련원동변강 전선경찰국 연합부대에 편입되어 전투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운 명

첫 전투임무를 받았다. 중국동북의 각 도시들에 주둔한 관동군부대들의 행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본부에 통보하라는 것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항일투사들의 부대, 특히는 항일빠르쩌산부대들도 만날수 있으니 그들은 전투임무수행에서 많은 방조를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녘에야 한사람이 나타나 필요한 정보를 받고, 저녁 어두워야 어저께 밤을 새던 집을 찾아갔었다. 주인은 마음놓고 쉬라고 하나 전혀 믿어지지 않았다. 바로 이때에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것이 나의 끝장이구나!>하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번개치

—라고 묻고서는—그이가 바로 김책동무였소—하고 알려주는것이였다.

1944년 7월중순에 창국동무는 아군부대의 도움으로 북조선 라진항 부근에 도착하여 타고온 고무뽀드는 공기를 빼고 물 밑에 감추어놓고 이미 정해진 목표—큰 돌바위겉 소나무 2그루가 서있는 곳을 찾던 순간 어디에

않고 정세를 살폈다. 그러던중 집에서 아침에 보던 중학생과 3명의 일본경관이 그 집에서 나오면서 주인에게 박채를 가하면서 <왜 오지 않는가?>고 따지는것이였다. <이근처 수풀속, 옥수수밭 등을 원통 수색하라!>는 경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무질서하게 사격을 가하였다. 탄환들은 창국동무의 곁을 스쳐 날아갔다. 2시간 동안이나 창국동무는 달음쳐서 겨우 그들을 피한후 2일 간에 100여킬로메뜨르를 통과하였다. 이렇게 회령에 도착하여 본부의 지시대로 동작하였다. 무전을 통하여 동지방 비행장, 항공부대에 대한 자료들을 본부에 보고하였다. 이것은 창국동무의 경찰활동에서 극히 적은 애써소드이다.

1945년 8월 15일에 조선은 해방되었다. 1948년에 조선에서 소련군대가 철거한후 창국동무는 조선인민군대에 편입되어 인민군경찰국 부국장으로 복무하였다.

1950년 6월 25일에 조선전쟁이 개시되자 창국동무는 긴밀히 경찰활동을 진행하면서 아군부대들의 전투에 크게 기여하였다. 1950년 12월에 창국동무는 지뢰폭발로 인하여 타박상을 입은 철과 중환에 있다가 소련에 귀국하여 1981년 11월 11일에 6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김창국동무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국기훈장 1급, 2개의 국기훈장 2급, 한개의 자유독립훈장 2급 등 기타 훈장들을 수여하였다. 그는 소련표창도 많이 받았다.

현재 김창국동무의 아들 3형제는 모두 고등지식을 소유하고 직장들에서 근무하면서 환갑이 지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있다.

따스켄트에서 장학봉

경찰병으로는 대어나지 않는다

준엄한 첫 시련의 길을 마련하여주는 전투임무를 맡고 나오는 도중 북도에서 동창생이었던 유성철동무를 만나게 되어 몹시 기뻐다. 유성철동무도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사업을 하였으며 조선에 나가서 조선인민군 창건에 참가하였으며 조선전쟁시에는 조선인민군 작전국장장이었으며 중장이였다. 바로 그도 특별과제를 중국에 가서 성과적으로 실행하고 돌아왔다는것이였다. 유성철동무는 창국의 초조한 심정을 알아마친듯이 <쉬운 전투가 어디 있소. 령리하게, 민첩하게 동작하면 별일이 없을거요>하고 태연하게 충고하는것이였다. 창국동무는 유성철동무와 갈라지면서 <야, 잘있거라! 만약 내가 전사하게 되면 네 자신이 알고있는 주소대로 나의 어머니에게 사연을 적어 편지나 써서 보내주렴!>라고 부탁하였다. 유성철동무도 무사히 돌아왔으니...하는 생각이 그를 위훈에로 고무하는듯도 하였다.

해방후 창국동무는 유성철동무를 만나 경찰임무수행시에 겪은 한 애써소드를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때는 새월말이였다. 봄의 찬바람은 아직도 아슬한 정도였다. 화룡시에서 사위를 살피보았으나

듯하였다. 그래서 창국이 권총을 장탄하여 들고 창문 구멍으로 내다보니 어떤 키가 구척이나 되어보이는 사람외에 또 한사람과 함께 아래방에 들어서면서 <집에 또 누가 있는가?>하는 질문에 <먼곳에서 온 신임할만한 손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였다. 그러자 창국동무는 좀 안심하고 권총을 허리띠에 끼워놓고 손님들의 눈치를 살피보았다.

추운데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무에 대하여 나는 이미 알고있습니다. 나는 김일성동무와 함께 조선해방을 위하여 항일투쟁에 참가하는 사람이요, 나의 말을 자세히 듣고 본부에 보고하십시오—이렇게 말하고나서 그는 창국이 자신이 가보지 못한 통화, 심양, 공주령, 길림 등 비행장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과 적의 병종별 정형, 군대집결, 주둔 동향등을 명백하게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인차 잠들어버렸으나 나만은 눈을 는채 밤을 새웠다. 문제는 적당한 장소를 얻어서 받은 자료들을 본부에 다 전해야 하였다. 물론 첫 경찰임무는 성실히 실행하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유성철동무는

—창국동무, 동무를 만나주신이가 누구인줄 아무

서인가 가는 회파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창국동무가 기다리지 않던 신호이기때문에 큰 바위뒤에 숨어있노라니 회파람소리는 반복되였다. 창국동무는 큰마음을 먹고 속히 큰 바위우 소나무부근에 도착하자 어떤 중청년이 나타나기에 <요사이 기후는 어떠한지요>하고 물었더니 <기후는 아주 나쁘지만 어부들은 바다로 나갔습니다>하고 청년은 대답하고나서 <내가 바로 명철입니다>하고 소개하였다. 그가 바로 알아야 할 사람이였다. 창국동무는 라진시로 가기전에 산정에 자리잡은 초막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다음 안내자는 주인을 소개한다음 밤을 잘 쉬라고 부탁하고는 가버렸다. 아침식사를 하고있을 때에 중학생복을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창국동무의 일거일동을 살피보면서 말을 걸어보려고 시도하였다. 창국동무는 얼른 식사를 끝마치고 집을 떠나면서 <저녁 10시경에 돌아오겠다>고 주인에게 약속하고는 라진시로 내려갔다. 온종일 시내의 약속한 지점들을 찾아다니던 차에 <제사람>을 만나서 자료첩을 받고 그 사람턱택에 점심도 먹고 상세히 타전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집부근까지 와서는 제시간에 집에 들지